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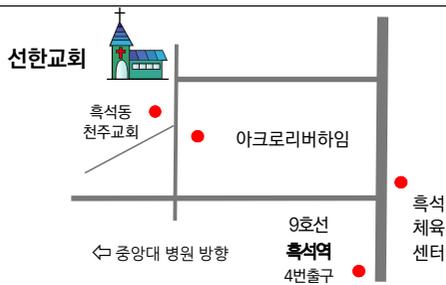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12)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7장 (통일찬송가 31장)
교 독 문	교독문 19 (시편 32편)
찬 양 과 경 배	423장 (통일찬송가 213장)
대 표 기 도	조 계 승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6장 12 ~ 20절
설 교	너희 몸은 너희것이 아니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22:17-29)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 드립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왕상 1장~왕하 25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4. 교 사 경 건 서 적
읽 기
(교육위원회 광고)**

금년 교사수련회는 경건서적 읽기로 대체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지저스 스폰'(오인숙 선교사님 신간)을 읽고 각 부서별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통 91)

본문 : 사무엘상 1장 1~28절

말씀 : 엘가나의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심하게 격분시키며 괴롭힙니다. 아마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브닌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닌나는 신앙생활을 못 하게 핍박하는 남편일 수 있고, 사치하면서 돈을 낭비하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가슴에 못질만 하는 자식일 수 있고, 만나기만 하면 제 자랑만 늘어놓으며 거만을 떠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알미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슬픈 사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한나는 사람 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 배에 싣고 오랜 시간을 오게 되면 대부분 죽지만, 미꾸라지를 잡아넣은 곳에 메기 몇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는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다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십니다. 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에 올라가 고백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26~28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린 약속을 지키는 한나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 당당한 존재가 됐다는 선언입니다.

뒤이어 사무엘상 2장에는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된 한나의 노래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어려운 문제로 눈물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바로 기도하던 그 사람입니다.”

제목

너희 몸은 너희것이 아니라 (고전6:12-20)

서론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 성도의 몸

- (1)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19절)
- (2)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다(15,19절)
- (3) 자유가 있지만 유익한 것을 해야 하고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12절)
- (4) 음행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18,20절)

2. 교훈

- (1) 내 몸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는가?
- (2) 주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3) 결코 그럴수 없느니라!

결론

주님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유신웅 장로
---------	--------	--------

매일 Q.T.	하나님의 법에 담긴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날짜 : 5월 24일
---------	---------------------------	-------------

찬양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본문	출애굽기 21:12-27
말씀요약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사형을 당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고의로 죽이거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갚습니다. 주인은 상해를 입힌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유연성 21:12-17 부모를 학대하는 자에게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넘어 사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적 관점에서 죄의 경중을 살필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상황에 따른 유연한 처벌 21:18-27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칙을 지키되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유연성 있게 결정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21장 26-27절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하고 정의로운 처신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니다. 힘으로 정의를 세웠던 고대 근동에서 정의는 힘 있는 쪽으로 곧잘 기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정의'라고 가르치며 이를 법으로 보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소유권이 종의 생명권이나 건강권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힘없는 자를 배려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법을 주신 하나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를 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낙태를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배상법과 공동체의 평안”
찬양과 기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96, F)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사무엘하 12장에는 예언자 나단이 다윗왕을 찾아가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한 마을에 많은 양과 소를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비유인지도 모르고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며 대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하고 출애굽기 22장의 배상법에 근거하여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왜 다윗은 못된 부자 이야기에는 당장 명령해 정의를 행해야 한다고 노발대발하면서도 자신이 지은 무서운 죄는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권세로 그 정도쯤은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생각했지, 그것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은 도둑질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도둑질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당한 사람의 피해를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려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혹은 누군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나요?
말씀 나누기	출애굽기 22:1~15
묵상포인트	하나님의 법에는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에 기초한 배상법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반면 무고를 당해 재판받게 된 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알려 주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은 큰 평안을 누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5).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잃은 물건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신이 맡아 주던 이웃의 가족에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9~13절)
함께 기도하기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늘 가까이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이웃을 대하며 참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	날짜 : 5월 28일
찬양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본문	출애굽기 23:1-13		
말씀요약	거짓된 풍성을 퍼뜨리거나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의 것이라도 짐승이 곤경을 당하면 돕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하게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안식년에는 땅을 묵혀 두어 가난한 자들이 소산을 먹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편벽됨 없는 공의 23:1-9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묵상질문 2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 23:10-13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나와 이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과감히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23장 12절 주님은 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또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도록 안식에 관한 법규도 제정해 주십니다. 이는 인간의 안식과 자유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이 사람됨과 안식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 주십니다. 안식 곧 쉼의 자유는 모든 생명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진리를 거스르는 악인을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절대 선'이신 주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소유를 나누되 가난한 자라는 이유로 불의하게 두둔하지 않는 공정함을 갖게 하소서.		

매일 Q.T.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날짜 : 5월 25일
찬양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본문	출애굽기 21:28-36		
말씀요약	사람을 받아 죽인 소는 죽입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대해 경고받고도 단속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주인은 소와 함께 죽임당하거나 속죄금으로 갚습니다. 구덩이에 소가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보상하고, 이 소가 저소를 받아 죽이면 이 소를 판 값과 죽은 소를 반으로 나눕니다.		
묵상질문 1	소유자의 책임 21:28-32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소 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형평성을 고려한 후속 처리 21:33-36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성경적 기준으로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리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21장 28-29절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죽이지만,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며,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다면, 소는 물론이고 소 임자도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를 방치한 살인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은 버릇이 고약한 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불상사를 미연에 막도록 경고하시고, 세밀한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주의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 분란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정확히 분별하고,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	날짜 : 5월 26일
찬양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본문	출애굽기 22:1-15		
말씀요약	가축을 도둑질하면 소는 한 마리에 다섯 마리, 양은 한 마리에 네 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짐승을 풀어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가장 좋은 작물로 배상해야 하며, 남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말긴 물건이나 짐승을 도둑맞았을 경우, 말은 자가 결백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고의적인 죄의 책임 가중 22:1-6 훔친 것을 갖고 있는 경우(4절)와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1절) 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의적인 죄에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 22:7-15 물건 말은 이가 무죄에 대해 하나님께 맹세하면 말긴 이는 어떻게 해야 했나요? 원칙과 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22장 1절 하나님의 배상법은 상식과 예의에 관한 교훈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 하면’으로 시작하는 조항을 계속 열거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방종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상식과 배려를 늘 염두에 두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여러 경우를 가정해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 제 삶의 정황도 섬세하게 살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남의 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 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매일 Q.T.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날짜 : 5월 27일
찬양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문	출애굽기 22:16-31		
말씀요약	처녀와 동침하면 아내로 삼고, 처녀의 아버지가 거절하면 돈을 내야 합니다. 무당, 수간한 자, 우상 숭배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선대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행음을 피하라 22:16-20 하나님이 영적·육적 행음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묵상질문 2	거룩함을 추구하라 22:21-31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나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는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한절묵상	출애굽기 22장 21절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을 서로 다르지도 멀지도 않게 하는 요소가 ‘내가 받은 사람처럼’ 또는 ‘내 몸처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그네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그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나도 나그네에게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그네의 필요를 섬기는 자비는 하나님 나라 정신이며 거룩한 예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가증한 자들을 ‘살려 두지 말라’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비로운 자’라 선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진리에 입각한 균형 감각을 배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비롭게 대하되, 절대 용납해선 안 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는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소서.		